

‘味薄則通’, ‘氣薄則發泄’에 대한 小考

-『素問』注釋과 本草書의 비교-

趙學俊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對於‘味薄則通’和‘氣薄則發泄’的考察

趙學俊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通過關於各家對『素問·陰陽應象大論』‘(味)薄則通’和‘氣薄則發泄’方面的注釋內容與本草書相比較考察, 得出以下結論:

在『素問』的注釋中對‘通’與‘發泄’, 有三種不同的解釋. 即把‘通’解釋為‘通利’時, ‘發泄’解釋為‘發汗’; 即把‘通’解釋為‘宣通’時, ‘發泄’解釋為‘下泄’; 即把‘通’解釋為‘流通’時, ‘發泄’解釋為‘發汗’.

另外, 大部分本草書把氣味的厚薄與升降浮沈相結合, 認為‘味薄則通’是陰中之陽, 與春的‘升而生’的特性相符合, 因此認為是‘發汗’作用; 而‘氣薄則發泄’是陽中之陰, 與秋的‘降而收’的特性相符合, 因此認為是‘滲利’作用. 以上觀點與『素問』的大部分注釋不一致.

通過以上內容可以看到, ‘(味)薄則通’和‘氣薄則發泄’的條文中, 把‘通’解釋為‘滲利’, 而把‘發泄’解釋為‘發汗’是正確的.

關鍵詞: 氣味, 厚薄, 升降浮沈, 味薄則通, 氣薄則發泄

I. 序論

升降浮沈은 藥物 作用의 性向을 설명하는 藥性理論이다. 升은 向上을 의미하니 升提하는 作用을 하며, 強은 向下를 의미하니 降逆하는 作用을 하며, 浮은 向外를 의미하니 發散하는 作用을 하며, 沈은 向內를 의미하니

收斂 固藏 泄利하는 作用을 의미한다.¹⁾

이러한 升降浮沈은 氣味の 厚薄과 관련이 있으며 그에 따라서 ‘泄’ ‘通’ ‘發泄’ ‘發熱’의 4가지 作用을 갖게 되는 근거는 『素問』 「陰陽應象大論」의 문장에 있다.

그러나 ‘(味)薄則通’, ‘氣薄則發泄’에 대한 各家의 見解가 다름으로 因하여 藥性理論 中 氣味 厚薄의 作用 역시 뒤바뀌어 이해될 수 있

* 교신저자 :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 21-1 세명
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E-mail : johohun@kornet.net Tel : 043) 649-1347

1) 中華本草 編委會, 中華本草(1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28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서 『素問』의 各家 注釋과 本草書를 比較·考察하고자 한다.

II. 本論

氣味厚薄에 대한 說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타나는데 “陰味出下竅 陽氣出上竅 味厚者爲陰 薄爲陰之陽 氣厚者爲陽 薄爲陽之陰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²⁾이라 하였다. 여기에 氣味로 陰陽을 정하여 上下竅로 出함을 말하고, 氣味の 厚薄으로 다시 陽中之陰과 陰中之陽으로 구분하였고, 더 나아가 ‘泄’ ‘通’ ‘發泄’ ‘發熱’의 4가지 作用으로 그 성질을 概括하였다.

이처럼 藥性理論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氣味厚薄의 作用에 대해서, 실제로는 『內經』의 여러 注釋家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의아하며, 그 동안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랍다.

대체로 ‘(味)薄則通’, ‘氣薄則發泄’에 대한 各家의 見解가 달랐으므로 『素問』의 注釋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고 本草書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1. 『素問』의 注釋 比較

(1) ‘通’을 ‘通利’로, ‘發泄’을 ‘發汗’으로 해석한 경우

王永은 注에서는 “陰氣潤下 故味厚則泄利 陽氣炎上 故氣厚則發熱 味薄爲陰少 故通泄 氣薄爲陽少 故汗出 發泄 謂汗出也”³⁾라고 하여, ‘味薄’은 陰이 적어서 ‘通泄’한다고 하고, ‘氣薄’은 陽이 적어서 ‘發泄’한다고 하면서, ‘發泄’은

‘汗出’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通泄’은 구체적인 지적이 없다.

吳崑은 注에서 “陰氣潤下 故味厚則泄利 薄則通利 陽氣炎上 故氣薄則發散 厚則發熱”⁴⁾라고 하여, 역시 ‘味薄’은 ‘通利’하며 ‘氣薄’은 ‘發散’한다고 하였다.

張景岳은 注에서 “陰味下行 故味厚者能泄於下 薄者能通利 陽氣上行 故氣薄者能泄於表 厚者能發熱也”⁵⁾라고 하여 ‘味薄’은 ‘通利’하며 ‘氣薄’은 ‘泄於表’라 하여 역시 ‘發汗’으로 보았다.

丹波元堅은 注에서 “通謂小便”⁶⁾이라 하여, ‘通’은 小便의 ‘通利’로 보았다.

(2) ‘通’을 ‘宣通’으로, ‘發泄’을 ‘下泄’로 해석한 경우

高世栻은 注에서 “味厚爲陰者 味厚則下泄也 薄爲陰之陽者 味薄則宣通也 氣薄爲陽之陰者 氣薄則發泄 言雖發散 仍下泄也 氣厚爲陽者 厚則發熱 言既發散 且溫熱也”⁷⁾라 하여, ‘味薄’은 ‘宣通’한다고 하였으나, ‘氣薄’의 ‘發泄’을 ‘發散’을 하되 ‘下泄’도 兼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의 下泄은 정확히 小便 또는 大便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張隱庵은 注에서 “味厚 爲陰中之陰降也 故主下泄 味薄爲陰中之陽升也 故主宣通 氣薄爲陽中之陰降也 故主發泄 氣厚者陽中之陽升也 故主發熱 此節論氣味之陰陽升降”⁸⁾라 하여, ‘味薄’은 ‘宣通’하며 ‘氣薄’은 ‘發泄’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發泄’이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았다.

郭霽春은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에서 “泄

2)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3
3) 王永, 黃帝內經素問(王永注),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32

4) 程士德, 素問注釋匯粹,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74
5) 張景岳, 類經(上), 서울, 大成出版社, 1990, p. 37
6) 丹波元堅, 素問紹識,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409
7)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中國,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 39
8)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 20-21

은 王水 注에 의해 利가 脫한 것으로 의심하여 보충해야 한다. …… 通은 『千金方』에 ‘通字 아래에 ‘流’字가 있다. …… 發은 『本草綱目』 卷1下 ‘氣味陰陽’에서 李杲의 說을 인용하여 ‘發’을 ‘滲’으로 고쳐야 한다.’⁹⁾고 하였다. 그러나 『本草綱目』의 本注에 “滲謂小汗 發謂利小便也”¹⁰⁾라 하여 滲泄을 發汗 利小便의 두 가지 작용으로 보았다.

(3) ‘通’을 ‘流通’으로, ‘發泄’을 ‘發汗’으로 해석한 경우

馬蒔 注에서 “唯味之厚者爲純陰 所以用之則泄瀉其物於下 ●如大黃氣大寒 味極厚 爲陰中之陰 主於泄瀉 李東垣曰 酸苦鹹寒是也 ●味之薄者爲陰中之陽 所以用之 則流通不至於泄瀉也 ●如木通澤瀉 爲陰中之陽 主於流通 李東垣曰 酸苦鹹平是也 ●氣之薄者爲陽中之陰 所以用之 則發其汗於上 ●如麻黃爲氣之薄者 陽也升也 故能發表出汗 李東垣曰 辛甘淡平 涼寒是也 ●氣之厚者爲純陽 所以用之 則發熱不止於發汗也 ●如用附子則大熱之類 李東垣曰 辛甘溫熱是也”¹¹⁾라고 하여, ‘味薄’은 流通하되 泄瀉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으니 木通 澤瀉의 小便의 ‘滲泄’을 예로 들었고, ‘氣薄’은 ‘發汗’하니 麻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李東垣의 學說을 예로 들되 ‘味薄’ ‘氣薄’의 藥物例를 바꾸었다.

黃元御 注에서 “味厚則走泄 薄則流通 氣薄則發泄(發泄皮毛) 厚則發熱”¹²⁾이라 하여, ‘味薄’은 ‘流通’하고 ‘氣薄’은 ‘發泄皮毛’한다고 하였다.

徐靈胎『內經全釋』에서 “味厚則泄利 味薄則

通氣 氣薄則發散 氣厚則發熱”¹³⁾이라 하여, ‘味薄’은 ‘通氣’하고 ‘氣薄’은 ‘發散’한다고 하였다.

2. 本草書의 內容 比較

(1) 張元素의 『醫學啓源』

張元素는 『醫學啓源』 ‘用藥備旨’ 중 ‘氣味厚薄寒熱陰陽升降之圖’에서 “升降者 天地之氣交也 茯苓 淡 爲天之陽 陽也 陽當上行 何謂利水而泄下 經云 氣之薄者 陽中之陰 所以茯苓利水而泄下 亦不離乎陽之體也 故入手太陽也 麻黃 苦 爲地之陰 陰也 陰當下行 何謂發汗而升上 經曰 味之薄者 陰中之陽 所以麻黃發汗而升上 亦不離乎陰之體 故入手太陰也 附子 氣之厚者 乃陽中之陽 故經云發熱 大黃 味之厚者 爲陰中之陰 故經云泄下 竹 淡 爲陽中之陰 所以利小便也 茶 苦 爲陰中之陽 所以清頭目也 清陽發腠理 清之清者也 清陽實四肢 清之濁者也 濁陰歸六腑 濁之濁者也 濁陰走五臟 濁之清者也”라 하였다. 이는 ‘氣薄’은 陽中之陰이므로 體는 陽이나 用은 陰이어서 下降하며 茯苓과 竹이 이에 해당하고 ‘味薄’은 陰中之陽이므로 體는 陰이나 用은 陽이어서 上升하는 麻黃과 茶가 이에 해당하고, ‘氣厚’는 附子가, 味厚는 大黃이 해당한다고 前提하였다.

다시 ‘用藥備旨’ 중 ‘藥類法象’에서 “風升生 味之薄者 陰中之陽 味薄則通 酸苦鹹平 是也”¹⁴⁾, “熱浮長 氣之厚者 陰中之陽 氣厚則發熱 辛甘溫熱 是也”¹⁵⁾, “燥降收 氣之薄者 陽中之陰 氣薄則發泄 辛甘淡平寒涼 是也”¹⁶⁾, “寒沈藏 味之厚者 陰中之陰 味厚則泄 酸苦鹹寒 是也”¹⁷⁾라 하였고 이 네 가지의 분류에 해당하는 藥物들을 각각 소개하였는데, 이를 표로

9)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中國, 天津科學技術出版社(一中社 影印), 1991, p. 31

10)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93, p. 39

11)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成出版社, 1994, p. 36

12) 黃元御, 素問縣解(黃元御醫書十一種 上),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0, p. 37

13)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上) 內經全釋,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618

14) 張元素, (懸吐完譯)醫學啓源,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 192

15) 張元素, (懸吐完譯)醫學啓源, 上揭書, p. 202

16) 張元素, (懸吐完譯)醫學啓源, 上揭書, p. 224

17) 張元素, (懸吐完譯)醫學啓源, 上揭書, p. 234

표 1-1. 藥類法象에 따른 藥物分類

| 作用 | 해당 藥物 |
|-------|---|
| 味厚則泄 | 大黃 黃蘗 黃芩 黃連 石膏 草龍膽 生地黃 知母 漢防己 茵陳蒿 朴硝 瓜蒌根 牡蠣 玄蔘 苦蔘 川楝子 香豉 地榆 梔子 |
| 味薄則通 | 防風 羌活 升麻 柴胡 葛根 威靈仙 細辛 獨活 (香) 白芷 鼠黏子 桔梗 藁本 川芎 蔓荊子 秦艽 天麻 麻黃 荊芥 薄荷 前胡 |
| 氣薄則發泄 | 茯苓 澤瀉 豬苓 滑石 瞿麥 車前子 木通 五味子 白芍藥 桑白皮 天門冬 麥門冬 犀角 烏梅 牡丹皮 地骨皮 枳殼 琥珀 連翹 地黃 |
| 氣厚則發熱 | (黑)附子 乾薑 (乾)生薑 川烏頭 良薑 肉桂 桂枝 草豆蔻 丁香 厚朴 益智仁 木香 白豆蔻 川椒 吳茱萸 茴香 玄胡索 縮砂仁 紅藍花 神麴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藥物의 특성을 살펴보면 '味薄則通'에 해당하는 藥物들은 防風 羌活 升麻 麻黃 薄荷 등의 解表藥과 威靈仙 獨活 藁本 등의 祛風濕藥이 대부분이고, '氣厚則發熱'에 해당하는 藥物들은 黑附子 乾綱 川烏頭 등의 溫裏藥이 대부분이고, '氣薄則發泄'에 해당하는 藥物들은 茯苓 澤瀉 豬苓 등의 利水滲濕藥과 五味子 麥門冬의 收斂藥이 대부분이고, '味厚則泄'에 해당하는 藥物들은 大黃 石膏 黃芩 黃連 黃柏 등의 清熱藥이 대부분이다.

이로써 추측하면 '味薄則通'의 '通'은 '發汗'을 의미하며 '氣薄則發泄'의 '發泄'은 小便의 '滲利'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李東垣의 說

李東垣은 張潔古의 說에 四時의 '生化極變'를 결합하여 "藥有升降浮沈 化生長收藏成 以配四時 春升夏浮 秋收冬藏 土居中化 是以味薄者升而生 氣薄者 降而收 氣厚者浮而長 味厚者 沈而藏 氣味平者 化而成"이라 하고, "但言補之以辛甘溫熱及氣味之薄者 卽助春夏之升浮 便是瀉秋冬收藏之藥也 …… 但言補之以酸苦鹹寒及氣味之厚者 卽助秋冬之沈降 便是瀉春夏生長之

藥也"¹⁸⁾라 發明하였다. 이는 氣味の 作用을 결합하여 藥物의 升降浮沈을 이해한 것이다. 역시 氣薄則通은 '降而收'하는 작용과 통하므로 '通'은 下降하는 '滲利'와 관계가 있고, 味薄則發泄은 '升而生'하는 작용과 통하므로 '發泄'은 上升하는 '發汗'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3) 王好古의 『湯液本草』

氣味는 藥物에 동시에 존재하므로 한 가지 藥 중에는 氣味が 함께 있다. 따라서 王好古는 "味薄者升 甘平 辛平 辛微溫 微苦平之藥是也 氣薄者降 甘寒 甘涼 甘淡寒涼 酸溫 酸平 鹹平之藥 是也 氣厚者浮 甘熱 辛熱之藥 是也 味厚者沈 苦寒 鹹寒之藥是也 氣味平者 兼四氣 四味 甘平 甘溫 甘涼 甘辛平 甘微苦平之藥 是也"¹⁹⁾라고 하였는데, 王好古 역시 氣味の 厚薄을 升降浮沈과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4) 李時珍의 『本草綱目』

『本草綱目』「氣味陰陽」에서 "味之薄者則通 酸苦鹹平 是也 寒沈藏 味之厚者則泄 酸苦鹹寒 是也 氣之厚者則發熱 辛甘溫熱 是也 氣之薄者則滲泄 辛甘淡平寒涼 是也 滲謂小汗 發謂利小便也"²⁰⁾라 하여 張元素의 說을 인용하되 '發'을 '滲'으로 고치고 本注에서 滲泄을 發汗 利小便의 두 가지 작용으로 보았다.

또한 李時珍은 "酸鹹無升 甘辛無降 寒無浮熱無沈 其性然也 而升者引之以鹹寒 則沈而直達下焦 沈者引之以酒 則浮而上至巔頂 此非竅天地之奧而達造化之權者 不能知此"²¹⁾라 하여, 升하는 藥도 鹹寒으로 沈하게 하여 下焦에 直達하게 할 수 있고, 沈하는 藥도 酒를 사용하

18) 李時珍, 本草綱目, 上揭書, p. 42. 실제로는 『東垣十書』에 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19) 李時珍, 本草綱目, 上揭書, p. 42. 실제로는 『東垣十書』에 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20) 李時珍, 本草綱目, 上揭書, p. 39

21) 李時珍, 本草綱目, 上揭書, pp. 42-43

여 巔頂으로 上升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氣味の 作用에 있어서도 通變의 쓰임이 있음을 나타냈다.

(5) 李梴의 『醫學入門』

李梴은 「本草總括」에서는 『醫學啓源』의 「用藥備旨」를 인용하여 “輕清成象親乎上 味薄 茶之類 清陽出上竅 本乎天者親上也 親下重濁陰成形 味厚 大黃之類 濁陰出下竅 本乎地者親下也 清之清者發腠理 陽中陽 氣厚²²⁾之至 附子氣厚 陽中陽也 故發熱 清之濁者實四肢 陽中之陰薄氣使 茯苓淡 爲在天之陽 陽當上行 何爲利水而泄下 經云 氣之薄者 陽中之陰 所以茯苓利水而下行 然而泄下 亦不離乎陽之體也 故入手太陽 濁之濁者走五臟 大黃味厚 陰中陰也 故泄下 濁之清者歸六腑 陰中之陽薄味爾 麻黃 苦 爲在地之陰 陰當下行 何爲發汗而上升 經曰 味之薄者 陰中之陽 所以麻黃發汗而上升 然而上升 亦不離乎陰之體 故入手太陰²³⁾”이라 하였다. 이는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臟 清陽實四支 濁陰歸六腑”라는 문장에 근거하여 清濁을 陰陽에 맞추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醫學啓源』에는 “濁陰歸六腑 濁之濁者也 濁陰走五臟 濁之清者也”라고 되어 있는데 濁之濁과 濁之清을 바꾸고 ‘濁之濁’은 ‘走五臟’하니 大黃으로 예를 들고 ‘濁之清’은 ‘歸六腑’하니 麻黃으로 예를 들었다.

(6) 汪昂의 『本草備要』

汪昂은 張潔古, 王好古의 說을 따라 「藥性總義」에서 “氣厚則發熱(溫) 味厚則泄(降瀉) 氣薄則發泄(表散) 味薄則通(利竅滲濕) …… 味薄者 升而生(象春) 氣厚者 浮而長(象夏) 氣薄者 降而收(象秋) 味厚者 沈而藏(象冬) 味平者 化

而成(象土)”라 하고, “氣厚味薄者 浮而升 味厚氣薄者 沈而降 氣味俱厚者 能浮能沈 氣味俱薄者 可升可降²⁴⁾”이라 하였는데, 이는 氣味厚薄과 升降浮沈의 關係를 더욱 발전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여기에서 ‘氣薄則發泄’은 ‘表散’이라 하고 ‘味薄則通’은 ‘利竅滲濕’이라 하였는데, 이는 汪昂 자신의 注가 아니라 나중에 덧붙여진 글로 보인다. 만약 汪昂의 注라면 氣薄은 ‘降而收’하고 味薄은 ‘升而生’하는 것과 맞지 않게 된다.

III. 結 論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味厚薄的 作用 중 ‘(味)薄則通’, ‘氣薄則發泄’에 대해서 『素問』의 各家 注釋과 本草書를 比較·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素問』의 注釋 중에서 ‘通’을 ‘通利’로, ‘發泄’을 ‘發汗’으로 해석한 경우와 ‘通’을 ‘宣通’으로, ‘發泄’을 ‘下泄’로 해석한 경우와 ‘通’을 ‘流通’으로, ‘發泄’을 ‘發汗’으로 해석한 경우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張元素의 『醫學啓源』을 위시한 대부분의 本草書에서 氣味の 厚薄을 升降浮沈에 결합하여 ‘味薄則通’은 陰中之陽이니 春의 ‘升而生’에 해당하므로 ‘發汗’ 작용으로 보았고, ‘氣薄則發泄’은 陽中之陰이니 秋의 ‘降而收’하므로 ‘滲利’ 작용으로 보았다. 이는 『素問』의 대부분의 注釋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素問』「陰陽應象大論」의 해당 문구가 本草 理論의 근거가 되었고, 陰陽 清濁 四時 升降浮沈에도 부합하는 理論으로 발전되었으므로, 이 ‘(味)薄則通’, ‘氣薄則發泄’의 문구에서 ‘通’을 ‘滲利’로, ‘發泄’을 ‘發汗’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22) 본래 味厚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氣厚가 옳으므로 고친다.

23)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p. 592-593

24) 汪昂 著 楊東喜 編, 『本草備要解釋』, 中國, 國興出版社, 1983, p. 3

參考文獻

1. 高世忒, 黃帝內經素問直解, 中國,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2.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中國, 天津科學技術出版社(一中社 影印), 1991.
3. 丹波元堅, 素問紹識,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4.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93.
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成出版社, 1994.
6.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上) 內經全釋,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6.
7. 王冰, 黃帝內經素問(王冰注),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6.
8. 汪昂 著 楊東喜 編, 本草備要解釋, 中國, 國興出版社, 1983.
9.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10. 張景岳, 類經(上), 서울, 大成出版社, 1990.
11. 張元素, (懸吐完譯)醫學啓源, 大田, 周珉出版社, 2003.
12.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13. 程士德, 素問注釋滙粹,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2.
14. 中華本草 編委會, 中華本草(1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15.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16. 黃元御, 素問縣解(黃元御醫書十一種 上),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0.